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2022년 경제무역 전시회 1,807건 개최

- 중국국제무역촉진회는 ‘중국 전시경제 발전 보고서(2022)’ 발표를 통해 2022년 개최한 전시회는 총 1,807건, 전시면적은 5,576만 평방미터로 수입박람회, 광저우교역회, 서비스무역교역회, 소비재박람회 등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힘
-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전시회가 활발히 개최되었고 경공업 분야의 중소 규모의 전시회가 주를 이뤘음. 한편 동일한 도시에서 여러 전시관을 건설하는 추세를 보였고 신규 전시관 공급이 코로나19 기간 역성장했으며, 해외 전시회에도 적극 참가하였음
- 분야별로 보면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업, 농업 전시회가 각각 755건, 467건, 400건, 106건으로 전체의 47.3%, 29.3%, 25.1%, 6.6%를 차지함
- 식음료품, 담배·주류, 가구, 토목기계 및 건축자재 등 경공업품 전시회 개최 건수와 전시면적이 업종별 앞자리를 차지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4/25/content_25977612.htm

2 中 23개 성(省), 1분기 수출 플러스 성장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3개 성(省)의 수출이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고, 이 중 18개 성의 수출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함
- 광둥성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한 1조 2,177억 위안(한화 약 235조 원), 저장성 수출은 6.1% 증가한 8,357억 위안(약 161조 원)에 달함. 구이저우성 수출은 무려 92% 증가했고 신장(新疆)과 하이난성 수출도 각각 86.9%, 75.6% 증가함

- 수출 규모가 큰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은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녹색 전환 제품이 수출을 이끌었음. 광둥성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리튬배터리 수출이 각각 1,050%, 120%, 50.5% 증가했고, 저장성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리튬배터리 누적 수출이 46.2% 증가했으며, 장쑤성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휴대폰, 태양광 배터리 수출이 각각 324.7%, 64.9%, 56.5%, 2.4% 증가함

〈2023년 1분기 31개 성(省) 수출액 및 증감률〉

순위	지역명	수출액(억 위안)	증감률(%)	순위	지역명	수출액(억 위안)	증감률(%)
1	광둥	12,177	6.2	17	광시	845	75.1
2	저장	8,357	6.1	18	톈진	843	-6.7
3	장쑤	7,801	-2.3	19	산시(陝西)	659	-4.7
4	산둥	4,593	12.3	20	신장	585	86.9
5	상하이	4,078	-1.4	21	산시(山西)	218	-21.6
6	푸젠	2,875	9.6	22	윈난	186	-13.2
7	쓰촨	1,600	6.1	23	하이난	180	75.6
8	베이징	1,584	29.0	24	네이멍구	174	32.5
9	장시	1,570	52.6	25	헤이룽장	145	43.3
10	허난	1,402	13.8	26	구이저우	142	92
11	후난	1,256	70.8	27	지린	130	23.5
12	안후이	1,183	15.5	28	간쑤	45	45.1
13	충칭	1,104	-13.5	29	닝샤	42	0.9
14	후베이	961	9.2	30	칭하이	7	49.9
15	허베이	879	22.3	31	티베트	6	-42.6
16	랴오닝	861	8.1				

자료원 : 신경보

<https://www.bjnews.com.cn/detail/168249081814547.html>

3 中 20개 지역, 1분기 GDP 성장률 공개...지린성 8.2%로 1위 달성

-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4월 18일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한 후 4월 24일까지 총 20개 성(省)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함
- 20개 지역 중 8개 지역의 GDP 성장률이 5% 이상이며, 각각 지린(8.2%), 닝샤(7.5%), 하이난(6.8%), 네이멍구(5.6%), 톈진(5.5%), 후베이(5.1%), 칭하이(5.1%), 산시(山西, 5.0%) 등지임
- 지린성 GDP 성장률이 8.2%로 전국 평균치를 3.7%p 상회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지린성의 경우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 부가가치가 7.8%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 2월 21일 투자액이 400억 위안(한화 약 7.6조 원)에 달하는 지린성 자동차산업클러스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39건이 가동되었으며, 올해 관련 프로젝트를 총 167건 가동할 예정으로 투자액은 1,000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예상됨

<2023년 1분기 일부 지역(20개 성) GDP 및 성장률>

순위	지역명	GDP 총량 (억 위안)	성장률 (%)	순위	지역명	GDP 총량 (억 위안)	성장률 (%)
1	광둥	30,178	4.0	11	윈난	6,852	4.8
2	산둥	20,411	4.7	12	랴오닝	6,661	4.7
3	저장	18,925	4.9	13	광시	6,251	4.9
4	쓰촨	13,375	3.8	14	산시(山西)	5,824	5.0
5	후베이	11,900	5.1	15	네이멍구	5,344	5.6
6	후난	11,660	4.1	16	톈진	3,715	5.5
7	상하이	10,536	3.0	17	지린	2,834	8.2
8	베이징	9,948	3.1	18	하이난	1,776	6.8
9	장시	7,321	1.2	19	닝샤	1,207	7.5
10	충칭	6,933	4.7	20	칭하이	889	5.1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district.ce.cn/zg/202305/04/t20230504_38529572.shtml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4242701767316.html>

4 中, 1분기 소비재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재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한 4,787억 위안 (한화 약 91조원)에 달함
- 글로벌 최대 무역항구인 상하이항을 통한 소비재 수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상하이항을 통한 소비재 수입은 6.0% 증가한 1,988억 위안(약 38조 원)으로 전국 수입의 40%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의류, 화장품, 자동차 수입은 각각 전국 수입의 72.3%, 42.3%, 36.8%를 차지함
- 한편 중국의 최대 대외무역 수출입 도시인 선전시의 소비재 수입은 4.7% 증가한 341억 위안(약 6.5조원)이며, 브라질, 미국, EU 등지로부터 육류 수입이 35.1% 증가, 에콰도르와 아세안 등지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59% 증가, 의료보건용품 수입이 30.2% 증가하였음

자료원 : CCTV

<http://news.voc.com.cn/article/202305/20230507101359457717.html>

5 中, 1분기 26개성(省) 전기 사용량 증가

- 올해 소비 회복과 기업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세를 보임
- 3월 당월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5.9%로 1~2월 증가율 2.3% 대비 배로 증가하여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1분기 기준 26개 성(省)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 제조업이 발달한 저장성의 경우 11개 주요 업종 중 8개 업종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1분기 숙박과 요식업 전기 사용량은 4.1% 증가하여 지난해 4분기 대비 7.1%p 상승했으며, 신에너지차 충전 서비스업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무려 63% 급증하였음

자료원 : CCTV

http://www.ce.cn/xwzx/gnsz/gdxw/202305/07/t20230507_38534879.shtml

6 中, 5.1절 연휴기간 관광객 2.7억 명으로 2019년 수준 상회

- 중국 5.1절 연휴기간 각 도시의 중심 상권에 인파가 몰려들었으며 관광업, 호텔숙박업, 영화업 모두 호황을 맞이하였으며 거대한 소비 잠재력이 분출되고 있음
- 영화상영 매출액은 15억 위안(한화 약 2,8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판매액을 훨씬 상회했고 요식업 매출은 2019년 대비 90% 이상 증가, 관광지 숙박 주문량도 2019년 대비 40% 이상 증가함
- 연휴기간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70.8% 증가한 2억 7,400만 명으로 2019년 동기의 119%에 달했고 관광수입은 128.9% 증가한 1,481억 위안(약 28조 원)으로 2019년의 100.7%로 회복됨
- 상무부는 올해를 '소비 진작의 해'로 정의하고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으로 소비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추진하고 있음. 젊은층이 관광 소비 주력군이며 관광객들은 '몰입식 관광', '주문형 관광', '먹고 노는 원스톱 서비스 관광' 등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임

자료원 : 증권시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64905689340894996&wfr=spider&for=pc>

7 독일 반도체업체, 중국산 탄화규소 재료 선호

- 독일 뮌헨에 소재한 국제 유명 반도체 메이커인 인피니온엔(Infineon)은 5월 3일자로 중국 탄화규소 재료 공급상인 베이징TANKEBULUE(天科合达)반도체회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TANKEBULUE는 인피니온엔에 탄화규소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6인치 탄화규소(SiC) 잉곳을 공급할 예정이며, 동종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탄화규소(SiC)는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 재료로 고온, 고압에 견디고 열전도 기능이 양호하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등 장점이 있어 전기차, 태양광, 5G 등 분야에서 응용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인피니온은 최고 구매책임자는 최근 인피니온은 탄화규소 기술과 제품에 배로 투자하고 있으며, 공급선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여 공급망 탄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tech.ce.cn/news/202305/04/t20230504_38529147.shtml

8 中, 풍력발전설비 수출 빠른 증가세

-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풍력발전설비가 중국산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모 중공업유한 회사 해외사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사 제품은 30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는데 올해 수출 주문량이 증가하여 2024년까지 주문이 다 찾으며 전부 해외 주문임
- 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 수출과는 달리 풍력발전설비 수출은 설비 수출 외에도 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완공해야 하며 정책, 금융, 운송, 설치 등 일련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중국의 풍력발전설비 수출은 더 큰 기회와 도전을 맞이함
-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HS 85023100)의 2022년 수출입 총액은 10억 100만 달러로 집계됨. 풍력발전설비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9만 4,900대, 수출액은 30.5% 감소한 9억 9,800만 달러,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260대, 수입액은 30.2% 감소한 300만 달러이며, 수출 단가는 한 대당 2019년의 3만 2,700달러에서 2022년 1만 500달러로 대폭 하락함

자료원 : CCTV2, 천진경제학인

<https://new.qq.com/rain/a/20230423A06B5V00>

<https://baijiahao.baidu.com/s?id=1764401676106698836&wfr=spider&for=pc>

9 中, 올해 1분기 상장업체 매출 2.0% 증가

- 올해 1분기 중국의 상장회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17조 300억 위안(한화 약 3,262조 원), 순이익은 2.0% 증가한 1조 6,000억 위안(약 306조 원)으로 집계됨
- 중국상장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상장업체가 납부한 세수 총액은 4조 7,900억 위안(약 917조 원)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고, 총 3,413개 상장회사가 배당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여 그 비중이 67%에 달했으며, 현금 배당액은 1조 8,900억 위안(약 362조 원)임
- 한편 2022년 반도체 상장업체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670억 위안(약 70조 원)으로

반도체 업스트림의 장비업체와 제조업체 실적이 양호했으며, 이 중 반도체 장비업체 매출은 70%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업체 매출은 30% 증가함

자료원 : CCTV뉴스

<https://www.gzdaily.cn/amucsite/web/index.html#/detail/2010783>

10 모유올리고당(HMO) 첨가 분유, 中 분유업계 떠오르는 섯별로 급부상

- 중국 본토 분유기업 페이허(飞鹤)와 외자기업인 와이어스(Wyeth) 모유올리고당(HMO, Human Milk Oligosaccharides)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유 업체들은 HMO를 함유한 분유에 대한 분유 업계의 새로운 경쟁 분야로 예상함
- HMO는 모유에서 유당, 지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성분으로 면역 조절, 두뇌 발달, 장내 미생물 조절에 도움을 주며, 2015년부터 HMO가 첨가된 유아용 조제분유가 국내외에서 출시되기 시작함
- 최근 업계 표준인 ‘유아용 조제분유의 7가지 모유올리고당 함량 측정-액체크로마토그래피 탠덤질량 분석법(婴幼儿配方乳粉中7种母乳低聚糖含量的测定—液相色谱质谱法)’이 발표되었는데, 이 표준은 페이허가 주도하고 국가낙농기술혁신얼라이언스 등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국제 최초의 HMO 측정방법 관련 표준임. 페이허는 지난 2년간 HMO 분리 및 검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으며, 와이어스는 HMO 관련 8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송량(宋亮) 낙농업 애널리스트는 와이어스는 해외직구 상품에 이미 HMO 첨가했으나 그간 HMO 검사표준 등이 미비하여 일반무역으로 수입되지 못했으며, 향후 관련 표준이 완비되면 HMO 첨가 분유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4/202304231453261064.html>